

2022년 봄 학기
전 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로마서 5 장부터 8 장까지 —
성경의 핵심

메시지 12

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
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넉넉히 이김

성경: 롬 8:18, 31-39, 5:5, 17, 21

- I. “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.” — 롬 8:37.
- A. “이 일”은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가리킨다 — 롬 8:18, 31.
 - B. “넉넉히 이긴다”는 승리 중의 승리, 곧 가장 높은 형태의 승리를 의미한다 — 롬 8:37.
 - 1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오직 한 종류의 승리, 즉 넉넉히 이기는 승리이다.
 - 2. 어떤 것이든 가까스로 이기는 승리는 주님께에서 오는 승리가 아니다.
 - 3. 주님의 승리는 항상 “월등히 이기는”(로마서 8 장 37 절에서 ‘넉넉히 이기다’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임) 것이다.
 - C.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— 고전 15:57.
 - 1.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세상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— 히 2:14, 행 2:24, 계 1:17-18.
 - 2.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승리이며 이 승리는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인 우리를 위해 부활 안에서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승리를 성취할 것이다 — 고전 15:54, 빌 3:10.
 - 3.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 — 고전 15:57.
 - a. 주 예수님의 승리는 다만 우리를 위해 성취된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 매일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 — 고전 15:45 하, 6:17.
 - b. 우리는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를 당할 때 다만 그것을 이길 뿐 아니라 넉넉히 이겨야 한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체험이다 — 롬 8:35-37.
 - D.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다 — 롬 5:17, 21, 8:31-39, 비교 고전 15:54-57.
 - 1.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왕들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— 계 20:4, 6, 22:5.
 - a.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과 세상과 육체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것이다 — 요일 5:4.
 - b.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승리하고 이기는 생활만이 아니라 왕의 생활이어야 하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이어야 한다 — 요일 5:17, 21.
 - 2.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— 요 1:12-13.
 - a. 우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그분만이 왕이시다.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왕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— 롬 5:17.
 - b.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 우리는 신격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— 롬 8:16, 골 3:4, 벤후 1:4.
 - c.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 — 롬 8:31, 34.
 - E.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김으로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한다.

1. 우리는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늘들의 영역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다.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— 엡 2:5-6.
2. 우리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다 — 엡 1:21-23.
3.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생명을 살 수 있다 — 엡 2:5-6.

II. 우리는 “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” 넉넉히 이긴다 — 롬 8:37.

- A.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박해도 우리를 억누르거나 패배시킬 수 없다. 그보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며 정복한다 — 롬 8:37.
- B. 로마서 8 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난 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— 롬 8:18.
 1.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해답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— 롬 8:37.
 2. 우리가 모든 환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.
- C. 우리는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 넉넉히 이긴다 — 롬 8:37.
 1.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진다 — 롬 8:36.
 2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긴다.
 3.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셨다.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 — 롬 8:37, 요일 5:4.
 4.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길 뿐 아니라 정복하는 이들, 곧 모든 부정적인 것과 죽음까지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다 — 행 2:24, 계 1:17 하-18.
- D. 오직 한 종류의 사랑만이 참되며 그 사랑은 삼일 하나님의 분배의 결과이다 — 롬 8:35, 39, 15:30.
 1. 그 영께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분배 아래 있을수록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더 갖게 된다 — 요일 4:8, 16.
 2. 사실상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더 분배될수록 우리는 신성한 사랑으로 조성되는 의미에서 더욱더 사랑이 된다 — 롬 15:30, 엡 4:15-16.
 3.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의 표현인 사랑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것이다 — 갈 5:22.
- E.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부어 넣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문제이다 — 롬 5:5.
 1.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.
 2.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체험하고 누릴 때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분배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린다.
- F. 에베소서 3 장 19 절에서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한다.
 1.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 사랑을 알 수 있다.
 2.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그분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다 — 엡 3:18-19.
 - a.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측량 못할 사랑을 체험한 것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모든 것을 비교하는 것은 한 방울의 빗물과 바다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.
 - b. 그리스도는 그분의 우주적인 차원과 측량 못할 사랑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체험할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와 같다 — 엡 3:18-19.
- G. 에베소서 4 장 15 절과 16 절에서 언급된 사랑, 곧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,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며, 사랑의 삼일 하나님, 즉 하나님의 사랑, 그리스도의 사랑, 그 영의 사랑의 분배를 통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한다 — 롬 8:39, 35, 15:30.
- H.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 위에 펼쳐진 깃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들이라는 것을 전시하고 나타낸다 — 롬 8:37.
- I. “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” (계 2:10 상).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, 곧 “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”(계 17:14)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.